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11. 29 ~ 2020. 12. 12 제237호



▲ 잠비아의 한 교회 예배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 제공: WMM

## 이 믿음은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잠비아 한 교회의 예배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성도들이 줄지어 헌금을 드린다. 아이를 업은 엄마도 헌금을 드린다. 아이는 무대에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나 헌금함에 조심스레 헌금을 넣는 엄마의 표정은 진지하다. 한 손으로 아이의 발을 잡고 있는 엄마는 이 아이가 하나님

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등에 매달려 예배당에 간 아이는 예배당과 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라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드

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지 않을까. 어머니 속에 보였던 거짓 없는 믿음이 이 아이 속에서도 발견될 것이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디모데후서 1:5) [GNNEWS]

##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

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 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GNNEWS]



### 마음의 눈을 밝히사 (21)

##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는데 왜 자주 죄를 짓게 될까요. 눈물을 흘리고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고 술도 끊어보면 죄가 끊어질까요? 죄라는 것이 이렇다고 해결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영적인 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죄는 사탄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곧바로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요한일서 3:8)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낙시를 하려면 낙시대 투명한 낙시줄을 매고 찌를 겁니다. 그 밑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낙시바늘을 걸고, 거기에 물고기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지렁이를 꿰어 물에 던집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가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맛있는 먹이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식욕이 당기고 지렁이가 맛 있다는 생각으로 덤석 물었 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렁이 속에 걸려 있는 낙시바늘에 아가미가 꿰입니다. 그 낙시바늘은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시대를 따라가 보니 무시무시한 낙시꾼이 빙긋이 웃으며 회를 뜨든지 매운탕을 끓여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미끼만 물었 을 뿐이지만 미끼를 무는 순간, 낙시줄에 연결된 낙시꾼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곧바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일러스트=김경선

오셨습니까(요한일서 3:8).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무섭고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고 죄와

어둠의 제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연합하십시오. 진리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GN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 미국 10대 청소년 74%,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의 중요성 느껴



▲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출처: freelyphotos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세대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독교보가 최근 보도했다.

비영리 공익 로펌인 베킷트 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Freedom)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인 1000명의 의견을 분석한 '종교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이 Z 세대의 응답자 중 74%가 전염병 기간 동안 "신앙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는 모든 세대의 평균인 62%를 상회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인 연령층은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출생한 '침묵의 세대(Silent Generation)'로 64%가 신앙을 중요하게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70년대 생을 중심으로 한 'X 세대'는 56%로 가장 낮았다. 또한 Z 세대의 51%는 "신앙을 극단적

으로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31%로 가장 낮았다.

시모어 흑인교회정책연구소의 재클린 리버스 소장은 이 결과에 대해 "이전 (밀레니얼)세대는 신앙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다음 세대는 그 한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리버스는 그러나 Z 세대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조사 결과로는 응답자의 57%가 팬데믹 이후 재개방이 되면 예배당과 사업체에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0%가 종교는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이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응답자의 84%는 종교 단체가 '인종 평등과 정의를 옹호'하는 역할을

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연구 동향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종교단체 가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워싱턴 대학의 공공종교연구소 멜리사 데크먼 교수는 지난 2월 발표된 '공공 종교' 보고서에서 미국인 Z 세대 중에 비종교인의 비율이 2016년 조사된 밀레니얼 세대와 흡사하며 이는 "조직화된 종교를 떠나는 젊은 미국인의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8년 발표된 바르나(Barna) 그룹 조사에서는 Z 세대가 미국 역사상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낮은 세대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생각하는 비율이 Z 세대가 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밀레니얼 세대(30%), X 세대(30%), 베이비붐 세대(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룩 험펠 바르나 수석연구부장은 당시 조사에서 "Z 세대는 기독교나 교회에도 많이 노출되지 않는 포스트 모던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르다."며 "이 나라에는 비어있는 교회가 많다. 그 열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Z 세대다. 그들 중 상당수가 영적인 백지상태이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경고했다. [GPNEWS]

## 낙태 위험성 고발한 영화 '언플랜드' 12월 개봉... 개봉 전 단체상영 이벤트

생명 존중 정신과 낙태의 위험성을 고발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한국에서 12월에 개봉한다.

'언플랜드'는 8년의 신념을 뒤흔든 충격적 경험을 통해 생명과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 애비 존슨의 감동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가족계획연맹'의 최연소 소장이었던 애비 존슨이

수술실 뒤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고 생명 옹호론자로 돌아서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을 믿습니까?'를 제작한 척 콘젤만과 캐리 솔로몬 콤비가 다시 한 번 힘을 합친 '언플랜드'는 역대 기독교 영화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개봉 후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하는 등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한편, 영화사 오웬은 30명 이상 인원을 모집하고 영화를 관람할 지역과 시간을 정해서 영화사에 신청, 결재하면 지역에서 상영 가능한 영화관을 연결해준다. 문의 ☎ 010-9228-3229 [GPNEWS]

## 우간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 가족에게 독살 당해

우간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성이 가족들에 의해 독살당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VOM의 도움을 받고 있던 우간다 여성 애나(Anna)가 11월 초 독극물 중독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무슬림이었던 애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월 애나는 한 목회자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그 당시에도 몸이 아픈 상태였고 체중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가족들은 애나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메시지를 보내, 애나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달 후, 애나는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의사들은 애나의 장기가 독에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애나가 가족들과 함께 살 때 가족들

이 애나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나의 여섯 살, 열두 살의 두 아이는 애나를 돌봐주던 목회자가 보살피고 있다. 이 목회자는 "애나를 잃어 정말 슬프다. 두 아이도 많이 슬퍼한다."며 "애나는 감사하면서 죽었다. 하나님은 VOM을 통해 애나에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G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1.9~11.21)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예배 좌석 수 30%로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 예배의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주님, 코로나 감염자 확산으로 예배 참여수가 다시 제한되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실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분한 교회로 새롭게 해주시는 코로나 사건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인 뉴델리 '디왈리 축제' 대규모 폭죽 사용... 대기질 최악

심각한 겨울 스모그로 악명 높은 인도 수도 뉴델리 당국이 현지 최대 명절인 디왈리 축제에서 폭죽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대규모 폭죽 사용으로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렸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뉴델리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질 지수(미국 AQI 기준)가 1700~1800을 기록, 미국 AQI 단계 최대 지수인 위험(301~500) 지수를 훨씬 초과했다.

하나님, 잘못된 종교의 열심에 매어있는 인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이 열정이 주님을 향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폭죽이 아니라 진리의 빛 앞으로 나와서 죄 된 존재를 비추임 받고, 회복되는 일이 인도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탈레반 위협" 아프간 기자,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

아프가니스탄 남부 라슈카르가에서 12일 오전 라디오방송 기자 엘리아스 다이에(33)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접착폭탄이 터져 숨지고 차량에 함께 탔던 형제 등 3명이 다쳤다고 13일 AP통신이 전했다. 엘리아스는 그동안 탈레반의 위협을 받아 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탈레반이 수십 명의 아프간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님, 탈레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실을 보도했던 엘리아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들이 이 위기의 때에 더욱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 작년 홍역 사망자 21만 명... 23년 만에 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86만 9770명이 홍역에 걸렸고, 이 중 20만 7500명이 숨졌다고 12일 발표했다. WH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6개국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되면서 9400만여 명이 홍역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주님, 코로나뿐 아니라 홍역으로 온 세상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열방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고 안락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G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11월 30일 ~ 12월 12일

**11월 30일 ~ 12월 5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11.30~12.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1(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2.1,3~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2.4(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2.4(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4(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12.4(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그 외 4교회 진행중.

**12월 7일 ~ 12월 12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이\*\*)010-3737-3629, 12.7(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2.7,9~12(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2.8(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2.1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2.10(05~17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교회언론회, “교회에 대한 방역 정책 과도하고 공정하지 않다”

독일 메르켈 총리 “학교만큼 중요한 종교의 자유 고려해 예배 허용”  
30대 미만 사망자 전무, 독감에 준하는 대처방법 등 맞춤형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한국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과 같은 외국에서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주관으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참된 예배와 한국교회 나아갈 길’이란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방역정책에서 교회에 대해 규제는 과도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목회적 관점에서의 예배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곤 목사(고현교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우리나라 6만여 교회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는 모두 외부에서 감염된 이후 드러난 1400여 명

에 지나지 않으며 교회에서는 2차 감염도 없는 상태인데도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제한해 교회는 영육간에 계산하기도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예배 제한, 영육간의 어려움

박 목사는 “11월 11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2만 7799명 가운데 교회 확진자는 5%도 되지 않으며, 전체 6만여 교회 가운데 0.1%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99%의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제한받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공정사회 국정모토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목사는 “99만여 명의 확진자와 4만 23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 교회나 성당을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 또 71만 5600여 명의 확진자와 3만 9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독일에서 11월 초 2차 록다운에 들어가면서 레스토랑, 바, 클럽, 스포츠시설, 숙박업소 등은 폐쇄했지만 학교, 유치원, 병원, 교회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메르켈 총리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학교와 유치원을 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기를 소



▲ 지난 17일 한국교회언론회 주관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참된 예배와 한국교회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포럼 현장. © 복음기도신문

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의 입장에서 예배의 문제를 발표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신앙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로 완성되는데,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예배의 자유가 없기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는 신앙의 자유에 가까운 것이며 예배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또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해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장들이 행정편의적인 태도로 감염병예방관리법으로 장소 폐쇄,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는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신앙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이다

송 위원은 또 “지자체장들이 방역의 성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도 문제지만,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개인교 지도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것은) 너무 쉽게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종교개혁 당시) 루터 시대의 흑사병을 오늘날 코로나19에 비유하며 방역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1/3을 죽이고 치사율이 50%도 넘었지만 코로나19는 한국의 경우 치사율이 1.7%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장예배를 포기하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에서 방역을 위해 개인의 자유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이 차량벽을 쌓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개인교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우리나라는 마스크의 효과와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는 의료진들의 높은 소명의식과 의학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응해왔다.”며 “코로나의 치명률(확진자 가운데 사망률)은 1.75%로 7월 2.1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연령대 별로 볼 때 고령자의 치명률이 높은 반면, 30대 미만에서 사망자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 독감에 준하는 대처방법 등 맞춤형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개월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정도면 감염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는 경험을 갖게 됐다.”며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대응은 경제와 교육과 일상생활 붕괴, 교회 예배 제한으로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한국교회는 마스크 사용 등 선제적으로 안전수칙을 만들어 공예배를 드러왔다.”며 “소독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한 번 드릴 예배를 나누어 두 번 드리면 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많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행정명령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공평성이 기독교에만 꼭 짚어 제한하는 부당한 적용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행정명령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장복 교수(한일장신대 명예총장)가 ‘예배의 본질’과 관련 올바른 예배에 대한 10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최성해 목사는 “한국교회가 정부의 예배 변형 방침에 너무 쉽게 따랐다는 비난이 있다라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수호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토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GPNEWS]

## 한국교회의 올바른 예배를 위한 10가지 제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주최한 ‘코로나19 시대의 참된 예배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정장복 교수(한일장신대 명예총장)는 ‘코로나 시대에 음미해 보는 예배의 본질: 한국교회의 올바른 예배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예배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해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응답 행위라는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둘째, 예배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모시는 것이라는 목적을 실천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도적 전승을 자랑하

는 모든 교회는 교단이 공인하는 예배와 예식서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하는 예배의 틀과 절차와 진행을 성실히 지켜야 예배의 탈선이 없어지고,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은 교회로써 존속할 수 있다.

넷째, 십자가와 성찬상, 설교대와 인도대가 있는 성단은 성전 지성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경건과 신비의 감각이 살아 숨쉬는 예배당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중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중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철저한 준비와 기도로, 맑은 영성에 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목회자는 성도들이

순수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환경과 내용을 갖추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하며, 성도들이 ‘예배 우등생’이 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덟째, 인간을 위한 집회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구분해야 한다.

아홉째, 예배에 앞서 성단과 회중석을 살피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살피는 등 예배를 위해 정성을 모아 철저하고 섬세하게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민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한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장복 교수는 “타종교의 예배 목적은 소원성취와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의 복을 받는데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의 현장’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만물과 나의 생명까지 주신 창조의 은총과 죄값으로 죽은 나를 십자가 대속으로 살려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며 이 같은 원칙으로 예배를 드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GPNEWS]



▲ 지난 2014년 ‘525 회개의 날 해운대성령대집회’ 현장. © 복음기도신문

기획 | 창조 이야기 (44)

#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창조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요?”이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다.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내와 동침했다”(창 4:17)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담의 자식은 가인, 아벨, 셋 이외에 또 있다는 것 아닌가?’ ‘이 아내는 어디서 왔고, 아담 말고 창조 때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답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어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근친결혼, 인류의 기원, 진화론적 세계관, 지구의 나이 등 얽혀있는 잠재된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등장한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역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잠재적인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 둘씩 매듭이 풀어지듯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

는 기회로 삼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 속의 실마리는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했던 고백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창 4:25) 여기서 씨는 그의 아들인 셋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와가 아벨 ‘대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 셋이 태어난 때는 아벨이 태어난 다음이 아니라 ‘아벨이 죽은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고 말한다(창 5:3). 그렇다면 셋이 셋째 자식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자녀들도 여럿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서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족보가 순서적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아담 후손의 모든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노아의 직계조상만을 적어놓은 것이다. 즉 세대는 빠짐없이 적었지만,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아는 자신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구원받은 노아의 자신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버지인 라멕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노아의 할아버지인 므두셀라, 증조인 에녹도 마찬가지다. 즉 이 족보의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점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홍수 심판 이후 오직 노아만 살아남았으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아담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까지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아담은 다른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들 중에 단지 첫 살인자 가인, 첫 피살자 아벨,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유일한 구원받은 자, 노아의 직계 조상인 셋만을 기록한 것이다. 이 족보의 시작인 아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팔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창 5:4, 새번역) 즉 아담은 세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들과 딸들을



▲ 가인의 아내는 아담에게서 나온 여동생이었을 것이다. 출처: jw.org 캡처

낳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는 셋을 낳은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셋을 낳기 전인 130년 동안 아담이 아들만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모순된 생각이 아닌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명령으로 “생육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단지 아들만 주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 선택의 여지없이 자신의 여동생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주셨을 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창 4:14)라고 가인이 극도로 두려워한다. 왜 가인은 이렇듯 사람들

을 두려워했을까? 만약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가 먼 자들이라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만날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신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온 인류는 아담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행 17:26)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롬 5:12)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그러므로 가인뿐 아니라 아담의 자녀들은 모두 오누이끼리 결혼함에 틀림없다. <계속> [GNNEWS] <창조과학선교회 제공>



선교 통신

## 인도, 남편을 잃은 순교자 부인들... 박해자 용서하고 그리스도 증거해

힌두교 무장 폭도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박해자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전했다. 인도 오디샤주 칸다말 지역에서 2008년 8월 힌두교 사제인 스와미 락스마난다 사라스와티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힌두교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이 책임을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전가했다. 이후 수천 명의 무장 폭도들은 오디샤주에서 반 기독교 폭동을 일으키며 기독교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파손했으며, 강간과 살해를 자행했다.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부는 여전히 폭도들에 정당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2008년 8월 25일, 날리니(Nalini)는 남편 프리드몬(Freedmon)을 잃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프리드몬은 뒤따라오던 힌두교도 무리에 의해 살해당했다. 비슷한 시각,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프리드몬의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다. 날리니와 딸(15)은 불에 타는 집을 뒤로한 채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으로 피신했다. 그들은 음식과 물도 없이 사흘을 숨



▲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인도 순교자 부인들. 출처: 한국 VOM 캡처

어 지내다 인도 정부가 세워준 구호 캠프에서 지내며 음식과 옷을 얻었다. 날리니는 남편도 피신했다가 가족을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건 남편의 사망소식이였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600개가 넘는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하고, 6000명에 달하는 가옥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이로 인해 5만 6000명이 집을 잃었고 사상자는 1만 8000명이상이었으며,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공격으로 수십 명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남편을 잃었다. 이들 중 일부는 폭도들이 공격의 증거를 없애려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

여 불태우거나 거기에 산성 물질을 뿌리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한 여성은 한 힌두교 극단주의자가 남편의 장기를 목에 두르고 다니던 모습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 예수 믿으며 어떻게 분노를 품고 살겠어요?

그러나 캠프에서 지낸 10개월 동안, 날리니와 다른 두 과부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날리니는 “우리 셋은 함께 울었고, 그럴 때면 많은 사람이 다가가 위로해줬다. 그땐 내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날리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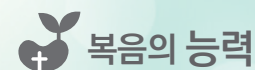
짚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든 날이 다가올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날리니는 남편을 죽이고, 모든 소유를 약탈해가고, 집을 불태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분노를 품고 살 수 있었어요.”

VOM에 따르면 순교자들은 모두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그 아내들이 “나는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VOM은 칸다말 과부들이 다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음식, 의복과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GNNEWS]

####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작고 소박한 진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생명과 능력의 불길 가운데 시작되었다. 세월이 흐른 후 교회의 내적 불은 꺼지고 외형주의의 잔해만 남았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 형식주의의 폐해가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각종 전통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9)라고 책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경고의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껍데기만 남은 예배에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들은 신앙의 참된 내면성을 회복하고자 짝퉁이 아닌 진짜를 추구한다. ‘크고 화려한 짝퉁’보다 ‘작고 소박한 진짜’를 선택한다. [GNNEWS]

십자가에 못 박히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탈북자 각 사람을 복음의 전사로 세워야 해요

통일을 준비하는 장인내 전도사(열방샘교회)



© 복음기도신문

탈북한지 10년째 된 장인내 전도사를 만났다. 장 전도사는 교회에서 탈북 성도들을 섬기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탈북 과정과 한국 생활을 들어봤다.

- 탈북자들을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우리 교회는 탈북 식구들이 60%, 남한 성도들이 40%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면서 탈북 2세들과 남한의 다음세대를 섬기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탈북하신 분이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통일소망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세요. 선교회에서는 1년에 두 번 북한선교학교를 열어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하고 파송해요. 이들은 탈북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3개월 동안 양육을 받고 난 후에 대사관이나 이민국과 연결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선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한 건물 안에 있고 대표님도 한 분이어서 같은 비전과 기도제목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어요.”

어요. 두 번째로 팔려 가게 된 곳에서 만난 한쪽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예요.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3년을 살았어요. 탈북 하는 과정에서 믿을 사람은 브로커뿐이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탈북을 한 처지이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중국 남편에게로 팔려가거나 채팅업자들에게 잘못 걸려들기도 해요.”

###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 한국에 오기까지는 긴 여정이 있었겠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았더니 브로커였어요. 한국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가족 모두가 없어졌던 사람이었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사람 만나게 해주겠다고요. 저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곧바로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국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와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한 시간 거리에 조선족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6개월 정도 다녔는데 남편이 매주 데려다줬어요.”

- 부군도 함께 교회에 나가셨나요?

“아니요. 데려다만 왔어요. 그러는 동안 목사님을 4번 정도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성경공부가 먹히지 않았어요. 그저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탈북 자매 4명 정도가 함께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무렵 그 모임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자매가 있는데 웬지 대답을 안했어요. 나중에 보니 그 자매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오해를 사게 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저 때문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없으면 관참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때가 첫 아이 돌이 지난 때였어요.”

### 중국을 탈출, 제3국 감옥을 거쳐 한국으로

- 가족이 모두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만 나왔어요. 급하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요. 무조건 도망 나오라고 했어요. 남편과 교인들의 도움으로 목사님이 소개한 분을 따라 11명이 함께 탈출했어요. 브로커와 같이 보트를 타고 강을 넘어 제3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경찰한테 잡혀야, 난민이 되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나라 대사관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어쩔거나 체포당해야 하죠. 그곳 감옥에서 이민국까지 40일 정도 걸려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 넘어오는 과정 중에 기억나는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그곳 감옥에서는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재판비용밖에 없어서 먹지 못했어요. 불법으로 그 나라 땅을 밟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첫 아이를 1년 동안 모유 수유를 하고 몸이 허약해져 있는 때여서 시장에 갔다가 기절해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되어 다시 머물던 경찰서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밥을 주더군요. 제3국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신력만으로 버텼어요. 지나고 보니 상처나 강박함, 메마름이 쌓이는 시간이었더군요.”

-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감사한 건 그때 호흡곤란이 있었는데도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데 오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해 바로 국정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국정원에 2개월 머무는 동안 저는 결핵약이 맞지 않아서 40일을 독방에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었는데 별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 몸이 아프면서 아이가 너무 걱정됐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이에게 옮겼을까봐서요. 조사받을 때 중국에 한번만 전화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가 너무 걱정된다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에 잘 도착했는데, 내가 폐에 별레가 생겼다. 아이도 병에 걸릴지 모르니 검사해보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때는 폐결핵이라는 용어도 모르니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 한국에 와서도 계속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독방에는 종이 한 장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불펜 하나가 가방에 있었어요. 글이 너무 쓰고 싶어서 휴지에 밥풀을 붙여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편지를 썼어요. 중국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처음에는 편지만 쓰다가 중국에서 성경필사를 하던 게 생각나서 성경책을 달라고 사정했어요. 조사받는 독방에서 성경책을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나가더니 10분 만에 갖다 줬어요. 그때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한 가지 멜로디로 밤낮 불렀어요. 휴지에 성경을 필사하고요. 그러나 약 부작용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병원에 같이 가주던 선생님이 아무도 면회 안 오는 걸 아시고는 면회를 오셨어요. 서운해하지 말라고, 명절에도 아내가 싸줬다면 음식도 갖다 주셨어요. 제가 휴지에 성경

을 쓰는 것을 보시더니 불펜 한줌 이랑 종이 100장을 주셨죠. 거기서 매일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대로 드리겠다고요.”

### 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다

- 그럼 언제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게 2011년 1월이었는데,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고 나니 5월이 됐어요. 집을 얻어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있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항상 용감한 척하고 씩씩한 척을 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숨 막힐 만큼 두려웠어요. 적막함 때문에 좌절하고 못 견디고 자살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바로 집을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평평 울었어요.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마침 목사님과 연락이 닿아 교회에 갔어요. 그때는 결핵약을 먹고 몸이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업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1년 동안 교회에 가서 살았어요. 집회, 수련회, 부흥회, 금식성회, 산기도, 별 곳을 다 다녔어요. 교회에서는 청소하고 음식도 했어요.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맛있다고 칭찬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2011년 11월에 지인의 소개로 복음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모태부터 죄인인 나를 보게 됐어요.”

- 어떻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셨죠?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지휘자였어요.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악역을 도맡아하셨어요. 엄마는 살아보겠다고 두부를 만들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북한은 선동을 하기 때문에 직장마다 운동이 있고 거기엔 예술이 빠질 수 없어요. 아빠는 지휘를 하면서 뇌물도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그것을 대원들에게 다 풀고 정작 집에는 잘 못하셨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외도를 하셨어요. 그 뒤로는 제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GNPN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초등부를 맡은 장인내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공: 장인내 전도사

- 탈북의 경험이 있어서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겠지요. 탈북 과정을 들려주세요.

“탈북을 결심하면 길을 인도하는 브로커를 따라가게 돼요. 대부분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언어도 안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인도한 브로커는 처음엔 북경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에게 저를 데려가 남편이라고 소개했었어요. 당시 저는 22살밖에 안됐기 때문에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고, 두려워서 몇날 며칠을 도저히 못 있겠다고 울었어요. 브로커가 안 되겠다고 여겼는지 저를 다시 연변으로 데리고 갔

에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줬는데 너무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본 분이 큰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그날 목사님과 2개월 동안 매주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님은 만나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목사님은 오실 때마다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들은 2박 3일 동안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울고 그렇게 아픈 시간을 겪는 동안 우리만 잘 살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지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2)

# 배신자를 향한 구원의 노래

회당장 아이로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 그는 예수님밖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알았다.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마치 막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간절히 간구한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막 5:23)

주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그 경배와 고백을 받으시면서 응답하신다. 무능한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치 않으시고 허락하신다.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에게 주님이 응답하신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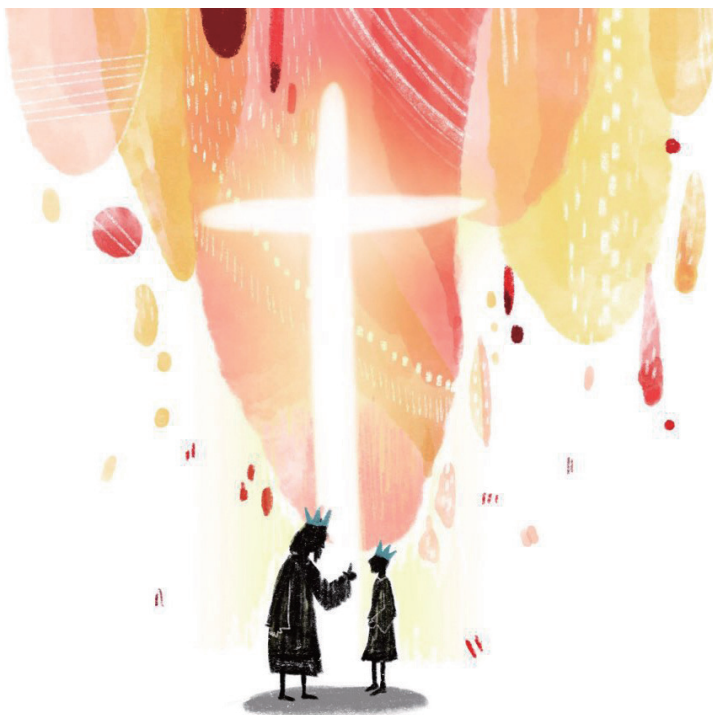
찾아가면 해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된다. 그러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말로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된다. 상황 처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답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며 함께 하신다. 유출병에 걸려 12년 동안 여러 의원을 쫓아다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경계를 받고 외면을 당하며 스스로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응답하시며 옷자락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 등불을 끄까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갈대는 한번 꺾이면 다시 세울 수 없다. 다시 세워 보지만 곧 부러진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 같이 희망이 다 사라져 보여도 주님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등불을 끄까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일러스트=이예민

아버지의 큰 사랑이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시온의 의가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잠잠치도 못하고 쉴 수도 없다. 나의 영광을 짓밟고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이지만 정오의 빛같이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노래다.

죄인들을 향해 끝없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오시던 주님이 끝내 가신 곳은 십자가였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가 되어 오셨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노래로 들려주신다. (2018년 3월) <계속> [GPNEWS]

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사 62:1)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

# 2021 긴급기도정보 발간

최신 기도정보 수록

2021 긴급기도정보 1

-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1 긴급기도정보가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 가격 : 1, 6권은 각 3,000 원  
2~5권은 각 5,000 원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총서2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 비상한 때, 비상한 응답

김용의 지음 | 복음과기도미디어 | 9,000원 | 98P | 2020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 복음 마스크 출시

고컬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고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힘껏 내리친 망치... 손가락을 가격하다

오랫동안 집 짓는 일을 해왔던 나는 지난달 건물 보수 작업을 부탁받았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단열이 되는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었다. 쉽게 여겼던 작업이 의외의 변수가 속출했다. 건들지 말 것을 하는 후회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벽에서 문을 분리하기 위해 문틀 위아래를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망치로 내 중지손가락을 가격하고 말았다. 너무 아파 '악'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순간 주님은 기쁨으로 섬길 수 없는 나의 모습과 불평했던 나의 부끄러운 생각을 회개하게 하셨다. 다친 손가락이 육신거 리더니 이내 시렸다. 다치지 않은 손가락들과 비교가 됐다. 그동안 나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무시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주님은 망치 사건을 통해 지난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며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

지를 기억나게 하셨다. 지난 군대 시절 나는 원치 않던 사고를 일으켜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었다. 독방에서 100일을 지내며 이제껏 두려웠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보았



일러스트=고은선

다. 자유가 없는 감옥 안에서 비로소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2평이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나'라는 인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보았다.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그저 창살문 두 곳을 통과했을 뿐이지만, 내 의지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면 사람이 온순해지고 순종적인 모양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 시간을 지나며 아쉬울 때는 급하게 때 달리다가 아쉬울 게 없어지

면 이내 마음이 바뀌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두 마음처럼 사람은 호흡이 있는 동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됐다. 도무지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위로

가 되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겨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사 42:3)

날씨가 추워져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운데 손가락이 시려온다. 이럴 때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고난 없이 선교는 뚫어지지 않는다. 이기적인 존재였던 내게 찾아온 고난은 주님이 나를 선교하시는 현상이었다. 존 파이퍼의 메시지가 생각났다. "고난과 고통, 희생의 이러한 것들이 올 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몫이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붙들고 가짜인 세상에 속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접할수록 일생을 복음에 맡길 때 복음이 나를 규모 있게 경영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된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한다. [GPNEWS]

최진국

## 그림 묵상



### 하나님 사랑하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지 이런 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 드릴 선물을 이고 지고 끄끙거리며 가는 중에 한 거지를 만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주님 거야. 저 거지에겐 과분하지." 한 나병환자도 스쳐 지나갑니다. "어! 저 고름이 내 선물에 묻으면 안 되는데. 멀리 돌아가야겠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못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이 여기 있는데 못 받았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GPNEWS]

그림 이수진

## 부흥을 위하여

# 제10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온라인 개최... 북한 인권 문제 알려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해온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영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언택트(온라인)를 통한 전시회 및 공연 등

을 즐긴다는 의미)로 개최됐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지난 10년간 영화를 통해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이념을 넘어 통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영화도 방영했다.

이장호·오현주 공동 조직위원장은 "지난 10년은 쉽지 않은 길이었으나 해마다 영화제를 찾아주고 응원해

준 수많은 관객이 있었기에 달릴 수 있었다."며 "올 영화제에서는 지난 10년을 정리하면서 북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은 어디쯤 가

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상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탈북 청소년 그룹홈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 가족', 18살 탈북 청년이 한국에서 살면서 자

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퍼플 맨', 한국 최초 밀라노국제영화제 단편 대상을 받은 '아리아' 등을 선보였다. 또 북한인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이 위험을 무

릅쓰고 촬영한 'North Korea VJ', 해방 후 러시아에 온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기록한 '고향이 어디세요' 등도 소개됐다. [GPNEWS]

## 영화 '트루 노스'... 정치범수용소 문제 알리기 위해 제작



▲ 제10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아리아'의 한 장면. 출처: 유튜브 채널 영화의온도 캡처

영화 '트루 노스(True North)'는 재일교포 시미즈 한 에이지 감독이 지인에게서 받은 정치범수용소 관련 수기를 읽고 나서 이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영화다. 영화는 1959년부터 시작된 '북송 사업'으로 인해 북한 땅을 밟은 재일교포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당시 북송 재일교포들은 일제 간첩으로 몰려 탄압을 받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으며 가족들도 연좌제로 함께 처벌받았다. 영화 '트루 노스'의 아홉 살 주인공 '요한' 역시 재일교포인 아버지의 간첩 혐의로 수용소로



▲ 영화 '트루 노스'의 한 장면. 출처: truenorth.watch 영상 캡처

끌려간다. '트루 노스'는 바로 그 '요한'의 시각에서 본 수용소의 현실을 그려낸다.

시미즈 감독은 "이 영화가 안네의 일기처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40년대 독일 나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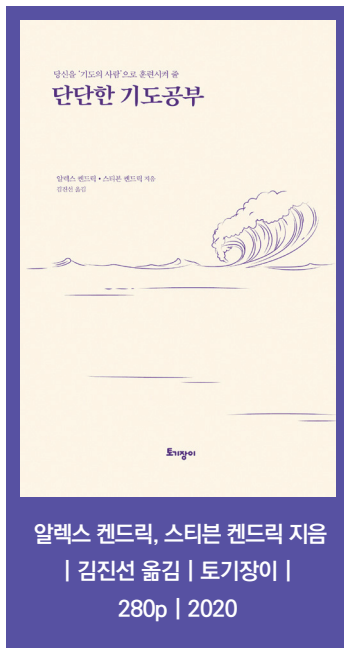
소 딱딱한 매개체보다 국경, 나이, 인종을 초월할 수 있는 장르인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한층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시미즈 감독은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려 할 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수십만 정치범수용소 수인(囚人)들의 존재와 안위에 대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GPNEWS]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숨어 지내다 결국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소녀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그의 사후에 출간돼 나치의 만행을 실증하는 귀중한 사료로 쓰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다만 그는 단행본과 같은 다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알렉스 켄드릭, 스티븐 켄드릭 <단단한 기도공부>

## 성공과 실패의 비결은 은밀한 기도에 달려있다



알렉스 켄드릭, 스티븐 켄드릭 지음  
| 김진선 옮김 | 토기장이 |  
280p | 2020

10년 전에 처음 보았던 영화 '믿음의 승부'를 통해 믿음의 격려를, 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워 룸(War Room)'을 보면서 강력한 기도의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기도의 불씨가 시간이 흘러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워 룸'이라는 이름으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는다. 어느 날, 감독이자 목회자인 알렉스, 스티븐 켄드릭 형제의 영화들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도 출간되어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적 유익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가운데 2020년 올해 한국어로 번역된 '기도'에 관한 책을 놓칠 수가 없었다. '단단한 기도공부(The battle plan for prayer)'가 바로 그것이다.

###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이끄는 기도안내서

영화 워 룸의 바탕이 된 이 책은 우리 각자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이끄는 기도안내서이다. 35개의 짙막한 각각의 주제별로 기도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들과 원리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기도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안내해주고 있어서 딱딱하지 않고 쉽게 읽혀진다. 각 주제들은 단 몇 페이지로 구성돼, 기도의 자극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에 필요

할 때마다 다시 꺼내 읽으며 기도의 불을 태우게 될 것이다.

'기도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통해 중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결이 기도였음이 새롭게 다가온다. 그의 아들의 증언이 있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중국의 태양이 떠오른 날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다." 기도의 무릎에서 선교 사역의 승리를 잉태한다는 진리를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파트에서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비결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의 우리 모습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마 6:6, 시 91:1) 더욱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님과 홀로 대면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 주시는 주님을 더욱 기대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기도의 자세와 마음은 어

떠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비상한 때에 드려야 할 비상한 기도와 여러 대상별(잃어버린 영혼들, 가족, 통치자들, 추수할 일꾼들, 교회와 부흥)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수백여 개의 관련 말씀들을 부록으로 제시하여 기도할 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도 이 책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이다.

### 기도를 우선시한다는 건 주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

"기도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분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이라 말하며,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모든 일에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도전하는 저자의 말에서 나의 지금까지의 기도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드는가? 지금까지의 내 기도골방은 어땠는가?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그 분을 얼마나 우선시했는가? 여러 질문들을 통해 무엇보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다짐하게

되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교회의 외적인 많은 사역들을 조정하고 또 멈추어야 했던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비상한 이때에 무엇보다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 초점이 분명해졌다. 그러한 동기와 불씨가 조금도 고민할 틈을 주지 않고 이 책을 주저 없이 접어들게 했듯이,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릴 은혜를 더욱 구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신을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는 저자의 고백이 마음과 귀에 울린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기대한다.

[GPNEWS]

양동원 선교사

##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에티오피아,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며 내전이 시작되다

방금 아비 어머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연방군에게 티그라이주를 공격, 정복하라고 명령했다. 아! 드디어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오고 말았다. 티그라이 주지사는 삼일 전 연방 정부가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린 바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되고 말았다. 아비 연방 정부가 전격 화폐교체를 할 때 수상하게 여겼는데...

현재 티그라이주로 연결된 모든 통신 수단이 차단됐다. 전격 화폐교체를 단행한 후 연방 정부는 티그라이와 전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많다. 즉 티그라이주로 들어가는 지방 예산을 끊어 버리고 모든 정치적 관계를 끊어 버린 일, 군 장성들 중 티그라이 출신들을 요직에서 모두 빼는 인사 단행, 티그라이주와 동일한 종족인 에리트레아의 대통령을 내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초대해서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는 행사, 어떤 정당 이름의 무장단체가 여러 주에서 소수 민족들을 이유 없이 학살한 일, 공항과 주 경계, 그리고 수도 시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통제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통제와 검문, 검색 등



▲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출처: thecrowdedplanet.com 캡처

등 많은 일이 있었다.

### 궁지에 몰린 에티오피아 정부

사실 현 연방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형국이다. 국내에선, 종족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메뚜기 폐와 60년 만에 온 대홍수로 에티오피아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번 선거에서 연방 정부의 재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에티오피아의 숙원 사업인 르네상스 댐 가동을 반대하는 이집트의 손을 미국이 들어 주는 상황이 발

생했다. 이 댐의 완공은 에티오피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함으로 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완공 시점에서 외교적으로 실패를 한 셈이다.

아비 정부는 이 난국의 돌과구를 자신의 가장 큰 반대 집단인 티그라이주 제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계획대로 될지 아니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어디까지 확산 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욕망의 발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자다.

그는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더욱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 하나 있다. 며칠 전에 아비 총리가 에리트레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티그라이주를 공격할 때 협공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까? 에리트레아는 현 대통령의 독재로 나라가 완전히 폐쇄해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든 그 나라에서 도망 나오려고 하는 나라이다. 20년 전에 선교사들도 모두 추방당했다.

주님께서 이곳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을 이루실 때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한다. 기도하자. 이 땅을 복음으로 다시 살려 달라고 강청하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 [GPNEWS]

다니엘 정(본지 통신원)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에티오피아 통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0. 11. 6 ~ 11. 18 (가나다 순)

#### 개인

고은영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유남 박성규 이삼연 이성원 이영선 정금자 차인수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하은숙 황하임 무명

#### 교회 및 단체

고현교회 모리아선교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웹 오이코노모스미 주소망교회 참종앗디라교회 하원교회 햄시바교회 화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